청소년과 에이즈

윤항영 /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시지부 청소년상담실 실장

"에이즈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슬로건은 국민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잘 전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좁혀본다면 "에이즈 우리 청소년 곁에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십대들의 성적 경험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청소년 상담실에 접수된 사례만으로도 알 수 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 경로에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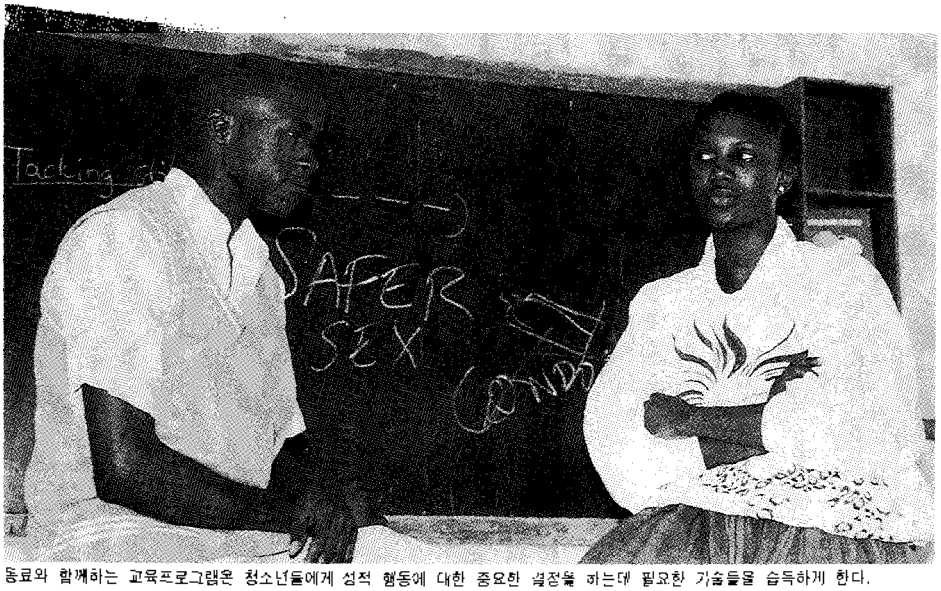
민간단체와 정부기관에서는 에이즈 예방의 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에이즈 감염자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심각성을 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의 문제도 크지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인한 소속된 사회문화의 부정적인 성관(性觀)이 청소년들의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담실에서 청소년들과 접하면서 느낀 에이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필자의 머리 속에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것들을 털어놓아 보겠다.

엄청난 성욕과 함께 성접촉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전과 달리 임질, 매독이 아닌 에이즈 감염이라는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유흥가나 환락가와 같은 환경이 청소년들을 향해 손짓하며 성충동을 부추기는 바람에 성접촉을 하고 난 후 에이즈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오줌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일시적인 신체적 변화가 혹 에이즈 증상이 아닌가 상담을 청해오기도 한다. 에이즈 감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임은 물론이다.

또 어떤 남학생은 친구와 서로 자위행위를 하다말고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며 숨가쁘게 물어오는 경우도 있다. 상담자가 상대의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해 주고 감염경로를 자세히 알려주면 수화기 너머로 공포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환하게 웃고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보기란 또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 달리 에이즈 감염이라고 자가진단해 버리고 다니던 학교를 포기한 채 죽음앞에 떨고 있는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성접촉을 한 상대가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말하고 잠적해 버린 사실을 접하고 자신도 당연히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자가진단해 버린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확실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짧지 않은 검진기간 동안—1회 검진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2차례의 확인 과정이 있기 때



동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성적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한다.

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주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기다리던 최종 검진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될 때 그 동안의 악몽은 간 데 없고 다시 되살아나는 싱싱한 푸른나무 같은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기쁨은 아마 두사람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묻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교육하기 위해 영어로 AIDS는 아(A) 이제(I) 다시(D) 생각해 보자(S)로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에이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청소년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교육으로 오히려 순진한 다른 청소년들까지 성접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냐며 흥분하는 어른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청소년들의 성적 노출은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성급한 차단보다는 대안책으로 남성은 콘돔, 여성은 페미돔으로 자신을 에이즈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성에 대한 홍보교육사업은 성행위와 관련된 지식제공, 태도정립, 실천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단체마다 에이즈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성의 개방화가 초래한 무책임한 성행위로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청소년들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국가와 민간단체가 하나가 되어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에이즈치료제까지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에이즈의 공포에서 벗어나 "성은 아름답다"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